

職業能力開發研究  
 第8卷(1), 2005. 7, pp. 25~42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한국과 비교한 중국의 직업구조와 인적자원개발 정책적 함의

유 홍 준\*

‘떠오르고 있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성장 속에서도 몇몇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 논문에서는 중국 직업구조의 특징과 취약점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산업화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큰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산업별 노동력 구성비를 보면 중국은 한국에 비해 20~30년, 일본에 비해서는 약 반세기 뒤쳐진 상태로서 아직 산업화 단계에 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중국과 한국의 직업구조를 비교 분석해 보면 한국이 이미 정보사회에 진입한 직업구조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겨우 산업화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교육구조이다. 따라서 미래 직업구조의 변화 양상을 예측해보기 위해 교육수준별 직업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동일한 교육수준으로 더 나은 직업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해 중국의 현재 교육구조는 현대적 직업구조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인구 중 학생구성을 보여주는 도표 역시 고등교육 인구가 극히 적은 중국 교육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 주제어: 중국 직업구조, 중국 교육구조, 중국 계층구조, 불평등

투고일: 2005년 6월 23일, 심사일: 7월 1일, 심사완료일: 7월 14일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전공 교수

## I. 머리말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민총생산은 세계 7위의 규모이며, 2020년경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거대한 시장,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막대한 규모의 노동력, 대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와 사람들은 이러한 중국의 경제발전을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몇 년 안에 한국경제가 중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Seki, 2002; Chang, 2001)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의 취약성, 보편화된 부정부패, 매우 높은 수준의 실질 실업률 등의 문제에 주목한다.

한편 일부 학자들(Yang, 1996; Riskin, et al. 2002; Unger, 2002)은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국 사회구조의 부정적인 측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농촌의 해체,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도시의 팽창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와 갈등 등이 주요 논점이다.

하지만, 현대 중국의 직업구조 변화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은 산업부문의 구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이것은 직업구조에 변동을 야기하며, 다시 새로운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현대 중국사회의 직업구조가 드러내는 특징과 그 취약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중국의 직업구조를 우리나라의 직업구조와 비교함으로써, 현재 중국이 산업화의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한 사회의 직업구조는 경제구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경제구조의 변동이 직업구조 변동을 초래하는 견인(pull)요인이라고 한다면, 인구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수준은 지원(push)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사회의 직업구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중국사회의 교육구조를 투입(input)으로 보고, 계급구조를 산출(output)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교육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직업구조를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계층구조에서의 불평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사회를 연구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장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사회조사를 통한 미시적(micro) 수준의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 공표된 거시(macro)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주 연구 목적은 중국의 직업구조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하는데 있다. 현대 중국사회 직업구조의 문제점을 교육구조와 계급구조와 연관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을 중국정부의 인적자원개발(HRD) 정책을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갖는 함의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 II. 중국의 발전과 교육-직업-계층구조

### 1.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지난 20여년 간 중국은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표 1> 참조).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의 개혁을 추진했던 1990년대 초반의 몇 해를 제외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거의 10%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표 1> 경제성장률(GDP)

	1953~1977 평균	1980	1985	1990	1995	2000
성장률(%)	11.85	7.8	13.5	3.8	10.5	8.0

출처: China Bureau of Statistics(2003),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2*.

1978년 이후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부문의 구성비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이는 <표 2>와 같다.

<표 2> 산업부문별 구성비

연 도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GDP %	노동력 %	GDP %	노동력 %	GDP %	노동력 %
1952	50.5	-	20.9	-	28.6	-
1965	-	81.6	-	8.4	-	10.0
1978	28.1	-	48.2	-	23.7	-
1980	30.1	68.7	48.5	18.2	21.4	13.1
1985	28.4	62.4	43.1	20.8	28.5	16.8
1990	27.1	60.1	41.6	21.4	31.3	18.5
1995	20.5	52.2	48.8	23.0	30.7	24.8
2000	16.4	50.0	50.2	22.5	33.4	27.5
2001	15.2	50.0	51.2	22.3	33.6	27.7

출처: China Bureau of Statistics(2003),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2*.

국내총생산(GDP)의 규모로 보면, 농림어업 중심의 제1차 산업의 구성비는 1952년의 50.5%에서 1978년에는 28.1%로 떨어졌다. 2001년에는 그 비율이 전체 국내총생산의 15.2%로 축소되었다.

한편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제2차 산업(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제3차 산업 구성비는 확대되어 왔다. 2001년에 제2차 산업의 GDP 구성비는 51.2%이고, 제3차 산업의 GDP 구성비는 33.6%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부문별 구성비를 노동력의 분포로 파악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제1차 산업에 속한 노동력 구성비가 1965년에 81.6%였던 것에서 2001년에는 50.0%로 떨어졌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노동력의 반을 차지한다. 제2차 산업에 고용된 노동력 구성비가 1985년에 20%를 넘어섰지만, 2001년 현재 22% 수준이다. 제3차 산업의 노동력 구성비가 변화된 양상은 제2차 산업의 경우와 비슷하나, 1980년대 이후 그 증가폭은 제2차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며, 2001년 현재 중국 전체 노동력의 28%를 점하고 있다.

<표 2>의 수치들은 중국 전체의 산업화 속도는 매우 느리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까지도 전국 노동력의 거의 반은 제1차 산업에 속해있고 그 생산성도 매우 낮다. 비록 중국이 지난 20여년 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고 하더라도, 산업부문의 노동력

구성비를 보면 중국이 산업화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서 잠시 중국의 상황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표 3>은 지난 40년 간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산업부문 구성비를 보여준다.

<표 3> 중국, 한국, 일본의 산업부문 구성비

		1960		1980		1990		2000	
		GDP %	노동력%	GDP %	노동력%	GDP %	노동력%	GDP %	노동력%
중국	1차산업	46.3	81.3	30.1	68.7	27.1	60.1	16.4	50.0
	2차산업	25.7	8.6	48.5	18.2	41.6	21.4	50.2	22.5
	3차산업	28.0	10.1	21.4	13.1	31.3	18.5	33.4	27.5
한국	1차산업	37.0	66.0	16.0	34.0	9.7	18.5	4.9	10.9
	2차산업	20.0	9.0	41.0	22.5	44.1	33.0	46.3	20.2
	3차산업	43.0	25.0	43.0	43.5	46.2	48.5	48.8	68.9
일본	1차산업	13.0	33.0	4.0	13.0	3.0	7.2	2.0	5.1
	2차산업	45.0	30.0	41.0	39.0	41.0	34.1	38.0	20.6
	3차산업	42.0	37.0	55.0	48.0	56.0	58.7	60.0	74.3

출처: China Bureau of Statistics(2003),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2*. 통계청(2003), 『한국 통계연감 2002』, KLI Data Base, 유희준(2001) 등에서 재구성.

우선 GDP의 구성비율로 볼 때, 2000년의 중국 GDP 구성비 분포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1980년과 유사하고 일본의 1960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력 구성비로 살펴 보면, 중국의 2000년 노동력 구성비 분포는 우리나라의 1960년과 1980년 구성비의 중간쯤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70년의 자료가 제시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주장이 크게 무리하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1960년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의 GDP 구성비 분포나 노동력 구성비 분포를 비교해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비해 20~30년, 일본에 비해 약 반세기 정도 뒤쳐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 2. 한국과 비교한 중국의 직업구조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88년에 세계 표준으로 제시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 체계에 맞추어 1993년에 개정된 직업분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직업분류 시스템 자체의 이러한 차

이점과 더불어, 나라 간에는 실제 직업의 구체적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퍼센트 완벽한 직업구조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아래의 두 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직업구조를 대분류 수준에서 개괄적으로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 4>는 1993년 개정 이전의 구(舊) 분류 시스템에 따른 것이며, <표 5>는 새로운 직업분류 시스템에 의한 것이다.

<표 4> 중국과 한국의 대분류 직업분류 비교(구 분류 시스템)

(단위: %)

직업 대분류	1982 중국	1985 한국	1990 중국	1993 한국
0/1 전문직, 기술직	5.1	5.8	5.3	8.4
2 행정, 관리직	1.5	1.5	1.8	1.8
3 사무직	1.3	11.5	1.7	15.0
4 영업판매직	1.8	15.5	3.0	15.9
5 서비스직	2.2	10.8	2.4	12.3
6 농업어업직	72.0	24.6	70.6	14.6
7/8/9 생산, 수송, 육체노동직	16.1	30.3	15.2	32.0
합계(단위: 만명)	521,510 (100.0)	14,970 (100.0)	647,240 (100.0)	19,327 (100.0)

출처: Chen, Ying Ying(1994), *Occupational Structure and Mobility*; 유흥준(2001), 「한국에서 산업, 노동시장, 직업구조의 변화: 1960~2000」에서 재구성

<표 5> 중국과 한국의 대분류 직업분류 비교(1993년 이후 신 분류 시스템)

(단위: %)

직업 대분류	1995 한국	2000 중국	2000 한국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58	1.7	2.75
2. 전문가	4.76	5.7	6.28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9.03		11.09
4. 사무직원	12.32	3.1	12.42
5. 서비스근로자, 상점/시장판매근로자	21.90	판매 5.3	24.17
		서비스 3.8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11.73	64.5	10.47
7.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15.80	15.9	11.72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0.67		11.03
9. 단순노무직 근로자	11.21		10.07
합계(단위: 만명)	20,378 (100.00)	668,740 (100.00)	21,989 (100.00)

출처: China Bureau of Statistics(2003),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2*.

위의 <표 4>와 <표 5>를 통해, 양국의 직업구조 변화에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에서 농림어업직의 취업자 구성비는 산업화와 더불어 괄목할 정도로 감소하였다. 그 비율은 1970년대에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1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비록 그 비율이 1982년의 72.0%로부터 1990년에는 70.6%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농림어업 직업부문에 속해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간 이 직업 부문의 구성비가 6% 정도 하락하였는데, 이는 수치로 볼 때 약 4천만 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2년에 이 직업 범주의 구성비는 64.5%이다.

② 중국에서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의 구성 비율은 1980년대 초반 이후 별 변화가 없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동기간 중에 거의 3배가 증가하여, 1985년의 7.3%가 2000년에는 20.1%에 달하고 있으며, 이 직업 부문의 구성비는 중국에 비해 약 3배가 큰 것이다.

③ 중국에서 사무직의 구성비는 1982년의 1.3%에서 2000년에는 3.1%로 증가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sup>1)</sup> 그 구성비는 한국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매우 낮은 것이어서, 2000년 한국의 사무직 구성비의 1/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무직 구성 비율이 1990년대 초반에 15% 정도로 정점을 이루었다가 그 이후 사무자동화 및 구조조정의 영향 등으로 약간 감소추세에 있다.

④ 중국에서 영업직 및 서비스직의 구성비율도 역시 증가하였다. 그 구성비는 1982년에 4%였던 것이 2000년에는 9%에 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업 부문의 구성비가 1985년에 26.3%, 1995년에 21.9%, 2000년에는 24.2%여서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⑤ 지난 20여년 간 생산 관련직(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구성비 변화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구성비는 중국이 약 15% 수준인 반면에, 한국은 3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차이를 보인다.

양국간 직업구조와 변화상의 이러한 양상을 비교해 볼 때, 중국사회의 직업구조는 산업사회 초기 단계의 특징을 드러내는 반면에, 한국의 직업구조는 정보사회의 직업구조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중국에서 직업구성비 1% 변화는 실제 취업인구 약 650만 명의 변화에 해당한다.

### 3. 현대 중국의 사회계층

우리가 어떤 사회의 발전단계를 확인하려고 할 때, 주로 경제발전의 수준과 산업구조 등에 주목하곤 한다. 그러나 때로는 사회 전반의 발전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의 계층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현대 중국은 전통적인 농업사회로부터 현대적인 산업화과정의 국가로 변화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변모해 왔다. 1978년 이후 경제 시스템상의 혁신과 이에 뒤이은 현대화로 인해 중국의 계급구조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전까지 사회구성원의 분화를 대변하던 세 계층—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 인텔리 계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더욱 다양화되었다. 이에 덧붙여, 관리자 계급, 사영기업주 계급, 농민공(農民工) 같은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였다.

이처럼 다양하게 분화된 계급 구성원들 간에 사회경제적 생활양식과 이해관계는 더욱 분명하게 나뉘어 지고 있다. 개인의 직업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계층체계가 개인의 정치적 지위 및 이중호구제(二重戶口制)에 따른 도시민과 농민의 구분에 기반했던 과거의 계급 제도를 대체하고 있다.

현대 중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계층 구분에서의 중요한 특징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u, 2002). 첫째, 현재의 사회분화는 직업분화를 대변한다. 경제발전 및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들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식 소유제 양식과 이중호구제 및 정부의 계획과 경제개입이 계층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중국에서 시장경제가 팽창하면서 생산자원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다른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서는 계급귀속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히 훨씬 낮은 편이다. 넷째, 경제체제 개혁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계급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주변적 계층집단의 형성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현대 중국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에서는 10개의 주요 사회계층을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사회관리자, 경리(전문경영자), 사영기업주, 전문기술자, 사무직, 자영업자, 상업·서비스직 종사자, 산업노동자, 농업노동자, 무직·실업·반실업자의 10개 분류 항목이다.

아래 <표 6>은 1952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패널자료가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치들은 각 년도 연감(年鑑)에서 제시된 것이다.



&lt;표 6&gt; 중국의 사회계층 구조: 1952~1999

(단위: %)

	1952	1978	1988	1991	1999
국가와 사회관리자	0.50	0.98	1.70	1.96	2.1
경리	0.14	0.23	0.54	0.79	1.5
사영기업주	0.18	0.00	0.02	0.01	0.6
전문기술자	0.86	3.48	4.76	5.01	5.1
사무직	0.50	1.29	1.65	2.31	4.8
자영업자	4.08	0.03	3.12	2.19	4.2
상업서비스업	3.13	2.15	6.35	9.25	12.0
산업노동자	6.40	19.83	22.43	22.16	22.6
농업노동자	84.21	67.41	55.84	53.01	44.0
무직, 실업, 반실업	-	4.60	3.60	3.30	3.1

출처: Lui, Shue Yie(2002), *Modern Chinese Social Stratification*.

이 표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민(농업노동자) 계층의 비율은 1952년과 비교할 때 1999년에는 거의 반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큰 사회계층이다.

둘째, 다른 모든 계급은 구성비율에 있어서 증가를 보여주었다. 1952년부터 1999년 사이에 그 증가비율은 대체로 4배(국가 및 사회관리자, 상업·서비스직 종사자, 산업노동자 계층)에서부터 10배(전문경영자, 사무직 계층)에 이른다. 신중국 건설에 따른 계획경제의 도입에 따라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한동안 사영기업주나 자영업자는 전무했지만, 1978년 이후 중국에서 시장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사영기업주 계층과 자영업자 계층의 팽창이 엄청난 규모로 일어났다.

#### 4.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분포

한 사회의 직업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직업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분포를 분석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lt;표 7&gt;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분포: 2001년 중국과 한국

(단위: %)

직업	교육													
	대학원 (중)	대학원	대학 (중)	대학	전문대 (중)	전문대	고등 (중)	고등	중학교 (중)	중학교	초등 (중)	초등	문맹 (중)	문맹
고위경영 관리직	30.3	11.3	13.8	11.0	11.2	6.4	4.3	4.6	2.2	2.3	1.3	1.0	1.5	0.3
전문, 기술직	49.7	71.4	49.2	42.6	34.4	30.4	17.8	8.0	7.7	2.1	3.4	1.0	2.3	0.5
사무직	16.3	10.3	29.3	22.5	39.1	24.3	25.7	14.8	10.4	3.5	4.4	1.3	3.2	0.4
판매, 서비스직	0.4	3.2	2.2	13.7	5.5	19.2	19.4	28.4	25.8	27.3	22.2	18.5	21.2	9.7
농임어업직	-	0.4	0.2	1.2	0.5	1.8	3.5	5.0	15.6	17.2	37.1	47.3	46.6	74.3
기능직	-	1.8	1.8	8.3	4.7	17.3	20.3	38.9	25.2	47.6	17.5	31.0	10.6	14.7
단순노무직	3.2	1.6	3.4	0.6	4.6	0.5	8.9	0.4	13.1	-	14.0	-	14.3	-
합 계	100	100	100	99.9	100	9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9

출처: China Bureau of Statistics(2003), *China Labor Statistical Yearbook 2002*; 통계청(2003), 『한국 통계연감 2002』

참고: 표에서 (중)과 함께 어둡게 칠한 열은 중국에 해당함.

위 표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분포 양상을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있어서, 임원 및 고위 경영관리 직업을 얻게 될 확률은 한국에 비해 중국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편 한국의 대학원 졸업자들은 전문직이나 기술직종을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고위 경영관리직,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속하는 직업을 얻는 비율은 한국에 비해 중국에서 높게 나타난다. 고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들이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속하는 직업을 얻을 확률 또한 한국의 졸업자들에 비해 중국의 경우에서 훨씬 높다.

셋째,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할 때,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비해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질 확률이 훨씬 높다.

넷째, 고등교육을 이수하고서 영업직, 서비스직 및 기능직종의 직업을 얻게 될 가능성은 한국 졸업자들의 경우가 중국에 비해 훨씬 높다.

다섯째,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90% 이상의 대다수 한국인들이 블루칼라 직업을 얻

게 되는데 비해, 중국의 중졸자 중에서는 20%가량이 화이트칼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은 같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서 한국인에 비해 더 나은 직업을 얻는다는 것이 드러난다.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현재 직업구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낳게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교육상황은 현대적인 직업구조를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중국의 직업구조가 형성되는데 있어서 공급측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교육구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5. 한국과 비교한 중국의 교육구조

중국에서 지난 30여년 간 교육에 투자된 재정투입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0%에서 2.8%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교육예산 비율은 세계 평균수준인 4.8%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의 평균 수준인 3.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World Bank, 2003). <표 8>은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재정지출의 비율이 약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8>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지출 비중: 중국과 한국

(단위: %)

연도	중국	한국
1970	2.0	2.9
1975	2.1	2.2
1980	2.3	2.9
1985	2.8	3.1
1990	2.4	2.8
1995	2.5	3.3
2000	2.8	3.7

출처: China Bureau of Statistics(2003),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2*; 통계청(2003), 『한국 통계연감 2002』.

한국에서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취학률<sup>2)</sup>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2) 취학률은 해당 연령층에서 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왔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90년대 초반에 90%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96.4%에 달했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1990년에 37.7%였던 것이 1995년에는 55.1%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증가속도가 더 빨라져서 2000년 이후에는 80% 이상의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그 비율은 2000년에 80.5%이고, 2001년에는 83.7%에 달한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2000년에 고등학교 취학률이 약 30% 수준이며, 고등교육 취학률은 여전히 10% 미만이다.

진학률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100%이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 수준으로의 진학률은 1990년에 상대적으로 낮은 39.2%였다. 그러나 그 비율은 1995년에 51.4%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68.0%에 달하게 되었다. 2003년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79.7%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은 빠르게 증가하여, 1993년에 81.8%에 이른다. 같은 해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44.1%였는데, 이는 한국의 진학률에 비하면 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특히 두 나라 간에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 수준으로의 진학률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1990년에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오직 1.7%여서 한국의 39.2%와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였고, 그 비율은 2000년에 8%로 증가했을 따름이다.

아래 <표 9>는 학생들의 구성비를 보여준다. 양국 모두에서 학생비율은 약간의 높낮이가 있으면서 변화해 왔지만, 그 구성비는 중국에 비해 항상 한국에서 높았다. 학생들 중 대학 재학생의 비율은 두 나라 모두에서 증가해왔지만, 그 비율은 중국에 비해 한국이 훨씬 높다.

표를 살펴보면, 2000년에 한국에서는 1만 명당 565명이 대학생인데 반해, 중국에서는 1만 명당 44명에 불과하다. 한국이 1975년에 1만 명당 81명의 대학생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2000년의 중국에 비해서도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표 역시 중국 교육구조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비록 중학생과 고등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등교육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한국에 비해 약 30년 정도가 뒤쳐진 수준이다.

중국에서 고등교육의 저발전 상태는 중국 인구의 인적자원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다시 중국 경제 및 21세기 중국 사회발전의 잠재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표 9> 학생 구성비: 중국과 한국

	총인구 중 학생 비율 % (중국)	총인구 중 학생 비율 % (한국)	인구 만 명당 학생수와 그 비율(%)					
			대학교 (중국)	대학교 (한국)	중고교 (중국)	중고교 (한국)	초등교 (중국)	초등교 (한국)
1975*	22.2	26.0	8.9 (0.4)	80.8 (3.1)	690 (31.1)	908.3 (34.9)	1,519 (68.5)	1614.5 (62.0)
1980	20.7	27.8	11.6 (0.6)	154.4 (5.6)	575 (27.8)	1114.4 (40.1)	1,482 (71.6)	1512.6 (54.4)
1985	17.6	27.2	16.1 (0.9)	294.9 (10.9)	481 (27.3)	1220.9 (44.9)	1,263 (71.8)	1201.6 (44.2)
1990	15.4	24.9	18.0 (1.2)	318.0 (12.8)	447 (29.1)	1050.8 (42.2)	1,071 (69.7)	1122.0 (45.0)
1995	16.3	23.2	24.0 (1.5)	398.9 (17.2)	511 (31.5)	1041.4 (44.9)	1,089 (69.1)	876.5 (37.8)
2000	17.3	22.9	43.9 (2.5)	565.3 (24.6)	660 (38.6)	855.1 (37.3)	1,028 (58.9)	874.2 (38.1)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3), 『한국 교육통계연감 2002』; China Bureau of Statistics(2003), *China Labor Statistical Yearbook 2002*.

\* 중국 자료는 1978년의 자료임.

### III. 중국 인적자원개발(HRD) 정책과 계층구조에 대한 함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교육구조는 매우 뒤쳐져 있다. 특히 대학 수준의 교육이 수 비율은 산업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매우 뒤떨어진 양상이다. 고등교육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취약성은 중국 직업구조의 저발전을 낳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 사회의 계층구조에서도 불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현대 중국에서 불평등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흔히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되는 지니(Gini) 계수가 0.35에서 0.48까지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Lui, 2002).

만약 중국이 보다 현대화된 계층구조를 갖기를 원한다면, 중국 사회에서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및 사무직업의 비율이 팽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화이트칼라 직업의 대부분은 고등교육 이수자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 취학률을 빠르게 올리는 것이 중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 사회의 경험을 보면, 고등교

육 취학률이 적어도 10% 수준은 되어야만 경제성장에 요구되는 인적자본의 필요성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 추구가 아무런 장애가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정부는 인적자본의 발전이 21세기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임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중국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8.3년인데, 이는 한국(11.6년), 일본(12.6년), 미국(12.8년)에 비해서 3.3년 내지 4.5년이 짧은 것이다. 2000년에 중국의 노동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5%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23%, 일본은 31%이고 미국은 그 비율이 35%에 달한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인적자원개발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에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에 평균 3년의 교육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구조의 전환이나 도시화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2년 11월에 열린 제 1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인적자원개발(HRD)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향후 반 세기동안의 3단계 전략 목표는 아래 <표 10>에 정리하였다.

<표 10> 중국의 인적자원개발(HRD) 목표: 2001~2050년

(단위: 년, 명)

	2000	2010	2020	2050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	8.3	9.7	10.8	13.3
신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	10.1	11.8	12.7	13.8
피고용자의 평균 교육 연수	7.99	9.6	11.0	13.5
(이 중에서) 제1차 산업	6.8	7.5	8.6	10.0
제2차 산업	9.4	9.9	10.8	13.2
제3차 산업	10.8	11.3	12.2	14.0
피고용자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4.66	10.54	19.30	43.98
(이 중에서) 제1차 산업	0.14	0.42	1.09	6.77
제2차 산업	5.95	8.03	12.77	35.76
제3차 산업	18.99	21.65	32.04	51.26
인구 1만 명당 고등교육 이수자 수	361	770	1,300	2,100
인구 1만 명당 고등학교 이상 이수자 수	1,115	1,600	1,900	2,900

출처: China Education and HRD Research Team(2003), 내부문건.

## IV. 맺음말

<표 10>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인 예산 투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를 개혁해야만 한다. 만약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노동인구 비율이 2020년에 19.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2000년의 한국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직업구조에서 보이는 취약성과 계급구조상의 불평등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극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교육에서의 저발전이 지속되는 한, 직업구조의 현대화가 지연될 것이고, 이는 계급구조의 현대화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직업구조로 분석한 중국의 발전 수준은 정보사회는커녕 산업사회의 단계에도 제대로 미치지 못한 형국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3). 『한국 교육통계연감 2002』 .
- 유홍준(2001). 「한국에서 산업, 노동시장, 직업구조의 변화: 1960~2000」, 『산업과 노동』, 제2권, 27~50쪽, 한국산업노동학회.
- \_\_\_\_\_ (2004). 『현대 중국 사회계층』, 그린출판사.
- 통계청(2003). 『한국통계연감 2002』 .
- Chang, Gordon G.(2001).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NY: Random House.
- Chen, Ying Ying(1994). *Occupational Structure and Mobility*, Beijing: Dong Fang Publishing.
- China Bureau of Statistics(2003).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2*.
- \_\_\_\_\_ (2003). *China Labor Statistical Yearbook 2002*.
- Lui, Shue Yie(2002). *Modern Chinese Social Stratification*, China academy of social sciences.
- Riskin, Carl, Zhao, Renwei & Li, Shi(2002). *China's Retreat from Equality*, NY: M. E. Sharpe, Inc..
- Seki, Hei(2002). *Suji Ga Akasu Chugoku No Shirarezaru Shotai*, Japan: Nihon publishing.
- Unger, Jonathan(2002). *The Transformation of Rural China*, NY: M. E. Sharpe, Inc..
- World Bank(2003). *World Almanac 2002*.
- Yang, Dali L.(1996). *Calamity and Reform in China*,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

## Comparative Study of the Occupational Structure and HRD Policy of China and Korea

Hong-joon Yoo

In this article, I intend to investigate the features and weakness of modern Chinese occupational structure. By comparing it with that of Korea, I try to answer to the question "On what stage of industrialization China is?"

The fundamental issue regarding the occupational structure is 'educational structure' as an input and 'class structure' as its output. Thus, it's possible to foresee the prospects of Chinese occupational structure by investigating Chinese educational structure. At the same time, it's probable to forecast future level of inequality in Chinese class structure.

The referred empirical data from 10 tables indicates that China is showing retardness in it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structure. Although Chinese government try to enhance its human capital capabilities through the HRD policy, it will take quite a long time. Thus, it would be safe to guess that it would lead in the persistence of inequality of stratification for another 20-30 years.

**Keyword:** Chinese occupational structure, Chinese educational structure, Chinese class structure, Inequality